

영암군민속씨름단, 존폐 여부 연말까지 결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설문조사·군민참여단 통해 의견수렴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위원회'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갖고 핵심의제를 선정하는 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갈등관리 분야 박선우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이경순 갈등조정센터 상임이사, 조사통계 분야 정기영 세한대학교

수·김명진 전북과학대 교수, 체육분야 김우주 조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5명과 김강식 영암군 사회단체 연합회장, 이용에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회장 등 지역사회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선을 통해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공론화 전문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공론화 추진 배경과 위원회 설립 배경 및 목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핵심의제로는 영암군민속씨름단 존치 여부,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의 효과,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선정됐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표본 수는 500명으로 하고, 군민참여단은 1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32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군민(오프라인)과 향우(온라인)를

대상으로 씨름단에 대한 인식조사와 군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민참여단은 속의 워크숍과 2번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 씨름단의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아 올해 말 영암군민속씨름단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김형주 기자

해남향교, 영·호남 유교문화교류 행사' 참석

전남도·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상생비전 선포식도 진행



해남향교는 지난 10일 보성군에서 개최된 '2022 영·호남 유교문화교류 행사' 및 전국 청년유림 송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상생비전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최영갑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회장을 비롯한 문영수 전라남도본부 회장, 류한정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장, 임재욱 성균관청년유도회 전라남도본부 회장 등 유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흥 송가인으로 활동중인 최나라 가수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식에는 국민례, 문묘향배, 헌장낭독, 임재욱 회장의 인사말, 류한정 회장의 인사말,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의 축사, 최영갑 총본부 회장의 축사, 문영수 전라남도본부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에는 류한정 경상북도청년유도회 회장의 '영남선비들의 공부론'이란 주제 발표, 정현종 성균관청년유도회 전라남도본부 감사의 '호남선비들의 공부론'이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장성년 해남향교 전교는 "유림들의 관심과 참여가 오늘처럼 영호남 유교문화가 교류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남향교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해남향교의 위상을 높여나간다면 더불어 해남유림의 자존감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여에는 장성년 전교, 명재규 보존계장, 민일기 유도회부회장, 손은수 청년유도회장, 이정석 청년유도회 감사 등이 참석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완도군 '우수상' 수상 영예

완도군은 최근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 2,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우수 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50개 우수 으뜸마을을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를 용암마을, 신지월부마을, 금당 울포마을 등 3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됐으며, 우수 기관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용암마을은 마을 한글학교 운영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로 만들었으며, 신지월부마을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보호수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금당 울포마을은 조용했던 포구에 야간 조명과 휴게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단장한 점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인호 행정지원과장은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경관 조성 및 사라져가는 마을의 유산 등을 발굴·보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성료... 퍼플섬 의정서 채택

국제네트워크 조직 등 섬문화 지속가능발전 공동 모색키로



세계 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1004섬 전남 신안'에서 마련됐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조직위원장 박우량·신안군수)'이 지난 8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자은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신안군 등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스페인과 사모아, 인도네시아, 그리

스, 마셜제도 등 섬을 끼고 있는 국가에서 참가했다.

포럼에서는 각 국가의 참가자들은 포럼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2022 퍼플섬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퍼플섬 의정서'는 섬문화의 가치를 일리고 보존하기 위해 '세계 섬문화 다양성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섬과 섬지역에 최적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또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섬 지역의 연대를 돕기 위한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실천과제로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세계 섬문화포럼, 전시·공연 등 연 1회 실시,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 제안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포럼 조직위의 의정서 제안을 반겼다. 큰 틀에서 의정서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의 섬은 모두 바다로 연결돼 있고, 이번 포럼은 바다같이 깊고 넓은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퍼플섬 의정서에 담긴 것처럼 세계의 섬들이 문화를 매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장이 주기적으로 많이 열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진도, 치매예방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총' 호평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 3D펜 이용 인지예방활동

진도군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총'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뇌총총 프로그램은 만 75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D펜을 이용, 인지예방활동과 뇌총총 인지감각워크북으로 뇌의 인지자

극을 촉구해 심리, 신체활동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주2회 치매안심센터 임회분소에서 진행된 '스마트 뇌총총'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운영이 끝난 뒤에도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운동도 하고 3D펜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도 튼튼해지고 기억력이 한결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진과 스마트 뇌총총 같은 다양한 인지가능향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치매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치매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 탄도만에 어미낙지 1만1500미 방류

갯벌낙지 자원조성 목적

무안군은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의 자원조성을 위해 낙지 조업이 마무러진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약 1만 1500미의 어미낙지를 탄도만 일원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낙지는 내년 봄 산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등 낙지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탄도만 일원에 낙지가 산란할 수 있는 서식장을 4개소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굵어기 기간 동안 어미낙지 3만 1000마리와 먹이 생물이 총 800kg를 방류해 자연산란을 통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올해 낙지 조업량은 11월까지 목표수령의 위판 낙지 기준 166만미(8만 3000톤)로, 이는 목표수령위판량 관할(무안, 목포, 해남, 진도, 신안)에서 위판된 전체 낙지 415만미의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대비 어획량이 늘어나고, 평균 위판 가격도 20마리 1절당 13만원으로 높게 형성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2023년부터 산란·서식장을 2개소 추가 조성해 총 6개소를 운영하고, 낙지목장도 3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려 4개소를 운영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자원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산란과 부화율마저 낮아 인위적인 자원조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어업인 스스로가 남획을 금지하고 굵어기 준수, 어린낙지 방생 등 자생적인 자원조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풍성한해로 수고 많으셨어요
땅끝해남이 응원합니다!

해남군

땅끝해남 스카이라인